

2016년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 기 간 : 2016. 10. 14. ~ 10. 23.(8박 10일)

◆ 국 가 : 뉴질랜드, 호주



경 상 북 도 의 회
Provincial Council of Gyeongbuk-do

III 목 차 III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및 연수개요 1
- 연수단 명단 2

II. 연수일정 및 연수국 현황

- 연수일정 3
- 연수국 현황
 - 1. 뉴질랜드 4
 - 2. 호 주 6

III. 연수내용

- 뉴질랜드 8
- 호 주 13

IV. 연수를 마치며

- 총평 16
- 연수를 통해 도정에 반영해 볼 만한 시책 17

연수목적

- 해외 지방자치도시의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
- 호주·뉴질랜드의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 산림·농업분야 등 지방을 특색화한 대규모사업 현장 방문으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및 각종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직접 비교·체험
- 선진외국의 복지정책 전반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정책에 대한 연수를 통해 도정에 접목하여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연수개요

- 연 수 국 : 뉴질랜드, 호주
- 기 간 : 2016. 10. 14.(금) ~ 10. 23.(일) / 8박 10일
- 인 원 : 18명(도의원 15, 수행공무원 3)

연수단 명단

소 속		성 명	비 고
계		18명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이홍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식	
	"	김정숙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농수산위원회	장용훈	
	"	윤종도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	김종영	
	"	남천희	
	"	박정현	
	"	오세혁	
	교육위원회	강영석	
	"	곽경호	
	"	김지식	
	"	조현일	
공무원	문화환경위원회	여승동	
	총무담당관실	황정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연수	

II

연수일정 및 연수국 현황

연수일정

날 짜	방문도시	교통편	시간	일 정
10. 14.(금) (1일차)	인천공항	KE129	14:10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출발
10. 15.(토) (2일차)	오클랜드 마타마타 로토루아	전용차량	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착 ■ 드라마·영화 콘텐츠 활용 관광마케팅 현장 시찰 ■ 전쟁박물관 방문 ■ 뉴질랜드 한인회 간담회
10. 16.(일) (3일차)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의회제도 및 의안처리시스템 자료 수집 ■ 전통민속마을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자료 수집
10. 17.(월) (4일차)	로토루아 오클랜드 퀸스타운	항공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로토루아 → 오클랜드) ■ 자연생태계 보존현장 견학 및 연수자료정리
10. 18.(화) (5일차)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퀸스타운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및 천연자원을 활용, 관광마케팅 현장 벤치마킹 -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 와카티푸 호수 등
10. 19.(수) (6일차)	퀸스타운 마운트쿱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계 보존현장 견학 ■ 연수자료정리 및 견학소감 공유
10. 20.(목) (7일차)	마운트쿱 크라이스트처치 시드니	전용차량 항공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운트쿱 국립공원 방문 ■ 이동(크라이스트처치 → 호주 시드니)
10. 21.(금) (8일차)	시드니 블루마운틴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지정 자연유산 블루마운틴국립공원 및 야생동물원 방문 ■ 재호주향우회(해외자문위원 등) 간담회
10. 22.(토) (9일차)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하우스 건축과정 벤치마킹 ■ 시드니 사회복지시설 방문
10. 23.(일) (10일차)	시드니 인천	KE122 전용차량	07:45 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시드니 →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연수국 현황

1 뉴질랜드

◆ 일반사항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인 구 : 약 467만명('16)
- 면 적 : 27만km²(한반도의 1.2배)
- 민 족 : 유럽인 74.6%, 마오리족 15.6%, 아시아계 12.2%, 남태평양인 7.8%
- 종 교 : 성공회(17%), 카톨릭(14%), 개신교(11%)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시 차 : 한국시간 +4시간(썸머타임 시)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 의회구성 : 총 121석
 - 단원제(임기 3년)
 - 국민당 59석, 노동당 32석, 녹색당 14석, 뉴질랜드 제1당 12석, 기타 4석
- 주요 인사
 - 총 독 : Dame Pasty Reddy(여)
 - 총 리 : John Key(남)
 - 국회의장 : David Carter(남)



◆ 경제현황[15]

- 총 GDP : US\$ 1,738억(World Bank)
- 1인당 GDP : US\$ 37,808(World Bank)
- 총 교역 : US\$ 710억(WTO)
 - 수출 : US\$ 344억
 - 수입 : US\$ 366억
- 경제성장률(GDP) : 3.39%(World Bank)
- 물가상승률 : 0.23%(World Bank)
- 실업률 : 5.75%(IMF)
- 산업구조(뉴질랜드통계청)
 - 1차 산업(7.9%), 2차 산업(19.1%), 3차 산업(65.6%), 기타 산업(7.4%)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 3. 26.
- 교민현황 : 30,174명('15)
 - 유학생수 : 6,327명('15)
- 출입국자 현황('15)
 - 뉴질랜드 방문(뉴질랜드통계청) : 64,992명
 - 한국 방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8,806명
- 한-뉴 FTA 발효 : 2015. 12. 20.
- 교역('15) : US\$ 24.9억(한국무역협회)
 - 수출 : US\$ 12.6억(석유제품, 자동차 등)
 - 수입 : US\$ 12.3억(목재, 낙농품 등)
- 투자 현황('15)
 - 對뉴질랜드 투자(누적, 신고기준)(한국수출입은행) : US \$5.05억
 - 對한 투자(누적, 신고기준)(한국산업통상자원부) : US \$0.72억
- 1 뉴질랜드달러(NZD)=0.73 미국달러(USD) (2016년 9월 기준)

◆ 일반사항

- 국 명 :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15년 인구 39만명)
- 면 적 : 769만km²(한반도의 약 35배)
- 인 구 : 2,389만명('15년 호주통계청)
- 기 후 :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
 - 육지의 30%가 사막 / 평균해발 300m 이하
 - 봄(9~11월), 여름(12~2월), 가을(3~5월), 겨울(6~8월)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전국적으로 100~2,000mm)
- 인 종 : 앵글로색슨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 2%
- 종 교 : 기독교 67%, 무종교 26%, 기타 7%(불교, 회교 등)
- 언 어 :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 교 육 : 초등교육 6년 + 중등교육 총 9년간 의무교육,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3년) · 대학(3~4년) 구성
- 국경일 : 1. 26.(Australia Day)
 - 1788. 1. 26. Arthur Phillip 함장 인솔 하에 시드니만에 도착,
영국 식민 개시
- 시 차 : 한국시간 +2시간(썸머타임 시)



◆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국가원수 : 영국여왕 Elizabeth 2세)

※ Peter Cosgrove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2014. 3월 취임)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 : 양원제(상원 76석, 임기 6년), (하원 150석, 임기 3년)
- 주요정당 : 자유당, 국민당(상기 두개 정당이 자유국민연합 형성), 노동당, 녹색당, 기타 군소정당

◆ **경제현황**(2016. 4월 기준, IMF)

- GDP : 1조 2,008억불 / 1인당 GDP : 51,641불
- GDP 성장률 : 2.5%
- 교역 : 총 6,693억불(수출 3,166억불, 수입 3,513억불)
- 화폐단위 : 오스트레일리아달러(Australian Dollar, AUD),
1 오스트레일리아달러(AUD)=0.77 미국달러(USD) (2016년 9월 기준)

◆ **재외동포 현황**(2011년 기준)

- 재외동포 : 138,764명(시민권 31,024 / 재외국민 107,740)

Ⅲ

연수내용

1

뉴질랜드

■ 방문지별 연수내용

● 크라이스트 처치

- 뉴질랜드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인구 35만명을 가진 국제공항을 갖춘 남섬 최대의 도시이며 '정원의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리울만큼 도시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3헥타르당 1헥타르가 공원이나 보호구역 혹은 레크리에이션 구역으로 이용되며 도시 곳곳에서 포근한 느낌을 주는 영국산 우람한 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이 녹용업계와 수산업계에 종사하며 쾌적하게 현재까지도 잘 살고 있는 곳으로 이름이 난곳되는 중심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가 남섬 제 1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일어난 캔터베리 대지진 때 많은 기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복구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주지진 피해복구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로토루아 시의회 및 시청

- 로토루아 시는 26만ha에 인구 7만8여명이 살고 있으며, 연간 소득은 약 2만4천달러 달하는 휴양지로 광천수가 나오는 온천수 이외에 14개의 국립 공원과 18개의 해양보존지구가 보존돼 있다.

관광 및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을 위해 로토루아(ROTORUA) 시의회를 찾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버 맥스웰'(Trevor Maxwell) 시의원은 로토루아 문화·관광 정

책에 대해 설명하고 “로토루아는 43%의 농장과 41%의 숲, 8%의 호수로 이뤄진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다. 이를 기반으로 마라톤 대회, 국제 경마 대회, 머드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럭비, 산악자전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결합해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함께 한 의원들은 온천을 이용한 로토루아만의 특화된 관광 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북도의회와 로토루아 시의회 간 교류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레이버 맥스웰 시의원은 “앞으로 2년 간 한국과의 교류 협력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가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만큼 시장과 논의해 향후 양 의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퀸스타운, 애로우타운

- 퀸스타운(Queenstown)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품안에 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관광 도시중의 하나이다. 길이가 77Km에 이르는 와카티푸 호수는 그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과 호수변의 그림같은 마을의 풍경과 절묘 한 조화를 이루었다.
- 애로우타운은 폭스타운으로 1862년에 세워졌다. 인근 애로우 강에서 금이 발견되자 금광이 세워지고 골드러쉬로 이어졌다. 윌리엄 폭스와 존 오칼라한 등의 광부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에 미리 채광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30lbs의 금을 채굴할 수 있었다.

● 마운트쿡

- 남섬의 상하를 가로지르는 서든 알프스산맥 중 최고봉이 바로 마운트 쿡이다. 원래 이 산을 마오리족들은 Aoraki라고 불렀는데, 이는 ‘눈을 뚫고 나온 산’이라는 뜻으로 더운 여름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으니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킬리만자로를 보는 기분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산의 원래 높이는 3,764m였는데, 1991년 눈사태로 인해 11m의 높이가 낮아져 버렸다. 약 1억 5천만년 전에 해져있던 산맥이 조산활동과 융기, 빙하침식 등을 거쳐 지금이 모습이 되었다. 3시간의 마운틴콧 트랙을 하면서 만년설의 장엄한 모습을 보고 감탄 할 수 밖에 없었다.

● 오클랜드

- 오클랜드는 1840년부터 수도가 웰링턴으로 옮겨가는 1865년까지 25년간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는데 이때 '오클랜드'라는 도시명이 붙여지게 된다. '오클랜드' 이름의 유래는 25년간 식민지시대 당시 영국에서 추앙받던 오클랜드경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 마이클세비지 공원, 미션베이

- 노동당 출신의 뉴질랜드 수상이었던 마이클 조셉 세비지의 이름을 딴 공원으로 마오리족의 전통요새인 파(PAR)가 있던 곳이기도 하며. 한 때는 토카푸레와(홍합바위)라고 불리기도 한 이 곳은 마오리족과 정부간의 충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현재는 Ngati Watva부족의 소유이다.
-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인접한 미션베이(Missionbay)는 산책이나 수영 그리고 요트를 즐기는 현지인들과 한적함을 즐기려는 연인들로 가득차 있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걸으면 약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미션베이는 화려한 휴양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 로토루아(유황의 도시)

- 북섬의 중앙, 로토루아 호수와 타라웨라 산을 끼고 발달한 도시 로토루아는 뉴질랜드에서 11번째 가는 규모와 인구 66,000명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이다.

뉴질랜드 전역을 뒤덮는 화산 지대 중 북섬의 중심인 이곳에서 관광객을 제일 처음 반기는 것은 유황 냄새로 이곳의 다른 이름인 '유황의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 뉴질랜드는 6.25전쟁 기간 중 포병 1개 연대, 구축함 2척 등을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하였던 나라이다. 안작(ANZAC)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중 연합군의 일원으로 터키의 갈리포리(Gallipoli)반도에 상륙했던 젊은 호주, 뉴질랜드군이 터키군의 공격으로 숨진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한국전 등에 참전하면서 여러 전쟁에서 희생된 호주의 모든 용사들을 기리는 날로 바뀌었다. 호주·뉴질랜드에서는 11월 11일뿐 아니라 매년 4월 25일을 '안작 데이(Anzac Day)'로 기념하고 있다.

● 아그로돔 농장 방문

- 아그로돔 농장은 광활한 초원위에 위치한 곳으로 실내 공연장에서는 매일 3회에 걸쳐 양쇼가 펼쳐지며, 양털깎이 쇼와 양몰이 개의 묘기가 펼쳐진다.

아그로돔의 쇼(Agrodome Show)는 진행자의 익살맞은 소개로 진행되며 이러한 설명은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통역되고 19종에 이르는 양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남미에서 수입한 알파카, 세계의 다양한 소, 사슴 등 여러 가축들과 키위 경작지 및 키위와인 시음도 경험할 수 있는 팜투어(Farm Tour)는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숲속을 거닐며 새소리를 들으면 절로 신바람이 난다.

이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를 함께 참여하여 즐기면서 이를 부가 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

● 테푸이아(Te Puia지열지대)

-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Wairakei Geothermal Power Project)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지열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으로 전체 전력 소모의 20%를 충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와이라케이 지열 발전소는 뉴질랜드 전체 전력의 5%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츰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많이 확대하는 추세이며, 우리도청 신청사에서도 지열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한다는 사실에 남다른 관심을 갖을 수 있었다.
- 30여미터까지 치솟는 포후투 간헐천(Pohutu Geyser)으로 진흙이 물 처럼 끓고 있는 열탕 등 살아있는 자연화산체험과 천연기념물인 날개 없는 새 키위(Kiwi)를 관람할 수 있다.
- 최근 2016. 9. 12 경주지역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하다가 막상 지진을 당하여 허둥대던 우리의 모습과 지진을 생활화하며 같이 상존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갖을 수 있었다.

● 마오리 민속마을

- 마오리의 전사들이 싸움을 하기 전 전의를 다짐하는 장면을 재현하여 이를 전통공연으로 만들고, 관광객들도 자기들의 전통놀이에 끌어들여 참여케 하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연이었다.
- 자국 전통문화의 엄숙하고 결의에 찬 전사의 모습을 외국관광객들에게는 흥미롭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우리나라도 전통 공연 시 많은 외국인들이 다 같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 뉴질랜드 한인회 간담회

- 뉴질랜드 한인회 회장단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와 뉴질랜드의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함께 토론했다. 한인회 회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한인회는 뉴질랜드 전 도시를 한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노스쇼어 시와 포항시가, 와이타케레시는 강남구와, 마누카우시는 울산시와, 헛 시는 경기도 화성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졌다고 한다.

또한, 한인회는 한국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 1년에 정기적으로 Korean Day와 Korean Night 행사를 개최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한국 관련 브로셔를 만들어 행사기간 중에 현지인들에게 홍보한다고 한다.

2

호주

■ 방문지별 연수내용

●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으로 블루마운틴이란 이름은 멀리서 보았을 때 진한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푸른빛은 유칼리나무에서 증발된 유액 사이로 태양광선이 통과하면서 파장이 가장 짧은 푸른빛을 반사하면서 생긴 것이다. 91종이나 되는 다양한 유칼리나무들이 주종을 이루는 숲의 특징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겠다. 산지의 대부분은 붉은 색을 띤 사암층(砂岩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사암이 침식되면서 생긴 수직절벽들을 볼 수 있다.

◆ 에코 포인트, 세자매봉, 퀘도열차

- 블루마운틴 산악지대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커툼바지역의 에코 포인트(Echo Point)다.
세자매봉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바위산을 비롯해 블루마운틴의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세자매봉은 비슷한 세 개의 사암바위가 융기한 형태로 주술사가 마왕에게서 세 자매를 보호하려고 돌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 이 협곡에서는 최대 경사면이 52도에 이르는 가파른 협곡을 달리는 퀘도열차를 타고 협곡 깊은 곳까지 구경할 수 있다. 1880년대에 협곡 아래 탄광에서 석탄과 광부들을 나르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퀘도열차는 가장 가파른 지역을 달리는 열차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 와일드라이프 야생동물원

- 시드니에서 비교적 가깝고 언제나 야생 동물을 안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야생 동물원으로 코알라, 캥거루 이외에도 윌래비웬벳, 에뮤, 크로커다일 등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직접주고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국가 문장이라고 불리는 캥거루와 날지 못하는 타조만한 새인 에뮤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호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들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뛰어 다니기 보다 주로 협소한 동물 우리에서만 감상이 가능하다는 것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 시드니

◆ 본다이비치

- 본다이 비치는 시드니의 비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높은 파도가 유명하여 써핑의 메카라고 불리운다. 태평양에 직접 면해 있어 파도가 높는데 '본다이'는 호주 원주민어로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

는 파도'라는 뜻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겨울철에도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의 호쾌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릿지

-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유일하게 100년이 안된 유네스코 건축물선정) 약 106만 장의 타일로 14년간의 공사를 거쳐 197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해 정식 개관하였으며, 도시의 기념비적 상징물을 갖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국제공모전을 통하여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Jørn Utzon)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 완공되어졌다고 한다.

- 하버브릿지(Sydney Harbour Bridge)는 싱글아치형 다리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다리로 시드니항의 상징이다.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59m인 다리는 마치 옷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낮은 옷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호주 건국 2백주년이던 1988년에 다리의 외곽에 녹색의 조명등을 설치하여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8년이 넘는 건설 기간 동안 해마다 1,5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열여섯 명이 건설 도중 목숨을 잃었지만 노동자 계층을 대공황으로부터 구제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시드니 아동 보육시설(Kinder Land)

- 시설현황 : 2층 규모, 놀이방, 도서방, 취미활동방, 숙면실 등
수용인원 : 40명(5세 ~ 7세 미취학 아동)
종사자 : 6명(교사 3, 도우미 3)
- 국가에서 보육료 등은 아동의 나이별로 차등 지원받고 있음
- 아동 형편에 맞게 주 2~5일 등원시키며,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 없이 각 부모들이 아동을 등원시킴
- 교사의 1일 8시간 이상 근무 지양

- 평가인증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시설 등 수시 확인하며, 3개월 단위로 활동사항을 정리 보고하고 있음
- 아이들이 스스로 놀며, 공부할 수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아동들과의 잦은 대화와 놀이의 동참여도로 창의적인 생각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모에게 아동의 활동상황을 수시 전달하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최고의 교육 가치로 삼고 있음

IV 연수를 마치며

연수총평

- 이번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방식, 특히 자연을 조화롭게 이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안정적인 삶과 노후가 준비되어 있기에 인생의 여유와 행복을 찾는 국민들의 모습이 돋보였음.
- 우리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각 분야별 기관이나 단체를 연계하는 것이 취약함. 지역단위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계획 및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함.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기관단체나 행정조직에서 기능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내 각 분야별 복지수요 파악, 기관 및 센터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부족한 자원 충당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 확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
- 특히 이번에 방문한 뉴질랜드 호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정책 등의 기반이 매우 잘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경북도의 관광 정책방향을 모색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복지 기반 인프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자연과 인공 건축물이 어우러진 관광지를 방문. 200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물론 '세계 신7대의 불가사의' 후보로 선정된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였으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인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방문하여 건축물과 자연의 하모니의 극치를 볼 수 있었음.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 관광정책은 기존의 자연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서 정책에 따라 하나의 지역 관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함
- 이번 연수에서 우리 연수단은 보통의 해외 선진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해외의 한발 앞선 복지정책 · 관광정책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선진 국가들의 여러 시행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경북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이런 소중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연수를 통해 도정에 반영해 볼 만한 시책

1. 자연과 함께한 세계적인 관광지화, 자연을 우선으로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

- 자연을 화롭게 이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다시 한 번 느꼈으며 천연자원에 스토리를 가미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지역 역시 문화유적 또는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최근 인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과 어우러지지 않고 어색함을 자아내는 것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자연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관리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2.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개발 및 환경 보존

- 우리가 둘러본 뉴질랜드의 지역경관은 산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이 초지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농축임산업이다. 우리가 방문한 아그로돔(Agrodome, 목장)은 이러한 산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그로돔은 다양한 양과 소 및 조류 등을 키우면서 이러한 전 과정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놓은 테마공원(기업)이며, 재계 30위에 들어갈 정도로 3대째 내실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며, 후자는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보와 조깅으로 삼림욕을 즐기는 공적 공간이었다. 아울러 호주의 블루마운틴(Blue Maintain)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고,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경관을 지닌 산악국립공원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이를테면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의미있게 받아 들여졌다. 우리 지역에 추진중인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천혜의 자원인 울릉도 및 독도를 활용한 관광테마 개발 등에 접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곳곳에 산재한 청정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자원화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시의회 의장이 시장 맡고,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주목

- 로토루아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운영 현황과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등에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시의 예산과 정책은 의료복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어 집행부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 및 의견에 기초하여 안건이 형성되는 등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행 운영되는 우리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와는 대조적인 방식이지만,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인 근로·복지정책

- 와이라케이 지열 발전소는 '안전을 철칙으로 한 인간 중심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장근무자가 아닐지라도 전 직원이 안전교육 및 응급 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건강검진 등 복지 분야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고있다. 특히,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해도 산재사고가 많으면 타 사업장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있어, 근로자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도내 산재한 사업장에서도 '안전제일' 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직원의 안전이 기업의 이익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경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들었다

5. 상호간 다각적인 모색을 통한 상생발전

- 뉴질랜드 한인회 회장단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와 뉴질랜드의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함께 토론했다. 한인회 회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한인회는 뉴질랜드 전 도시를 한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노스쇼어 시와 포항시가, 와이타케레시는 강남구와, 마누카우시는 울산시와, 헛 시는 경기도 화성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졌다고 한다. 또한, 한인회는 한국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Korean Day와 Korean Night 행사를 개최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한국 관련 브로셔를 만들어 행사기간 중에 현지인들에게 홍보한다고 한다. 이를 이용하여 k-pop홍보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다

6. 자연+전통+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화 창출

- 우리가 방문한 로토루아의 '미타이 마오리 민속촌', 시드니의 '시드니 항'과 '오페라 하우스'는 한마디로 역사적 전통속의 자원, 자연적인 바다(항구), 지역여가의 특성(요트) 등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미타이 마오리 민속촌'은 주변에 온천과 간헐천이

생생하게 많이 분포되어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신기한 전경을 이루고 있으며, 마오리족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열로 찌서 만드는 전통찜 음식 “항” 등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시드니의 ‘시드니 항’과 ‘오페라 하우스’는 아름다운 야경과 같이 자연적인 바다를 현대식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세계 3대 미항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에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을 자연+전통+현대가 조화롭고 특색있게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안동의 하회마을, 영주의 선비촌, 동해안 지역 등은 이러한 차원의 벤치마킹 요소를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사진대지-1】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



<뉴질랜드 6.25 참전기념비>



<뉴질랜드 6.25 참전기념비>



<뉴질랜드 한인회 간담회>



<뉴질랜드 한인회 간담회>

【첨부-사진대지-2】



<시드니 경북향우회임원 간담회 >



<시드니 경북향우회임원 간담회 >



<관광활성화 현지탐방-블루마운틴>



<자연환경보호 현지확인야생동물공원>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시드니>



<랜드마크건축물-오페라하우스내부>